

건강 칼럼

임플란트,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적용... 그 과정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치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건강한 치아는 음식을 제대로 씹어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원활하게 한다. 또한, 발음을 명확하게 해 사회적 활동과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치아가 건강하면 얼굴의 구조와 외모도 유지할 수 있어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치아는 점차 약해지고, 치아 상실의 위험이 커진다.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 중 하나다. 틀니나 브릿지와 달리 인접한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치조골의 흡수를 방지해 장기적으로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김 대 연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 원장

있기에 치아상실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면 임플란트를 고려해볼 수 있다.

65세 이상은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여야 하며, 65세 이상의 연령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는 한 사람당 두 개의 치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완전 무치약자는 보험 적용이 어려우며, 뼈이식처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치아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시술 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시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

고, 딱딱하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해야 한다. 또한 시술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구강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의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 금주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경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치아 상실시 선택하는 방법이다.

건강보험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치아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전신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시술 후에는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기의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므로,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를 고려해보길 권한다.

사설

후불제 여행사 문제

돈을 다 내지 않아도 여행 편지 보내준다던 후불제 여행사가 세간의 관심을 끌곤 했다. 그러나 결국 사기 행각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수천 명의 회원이 여행도 가지 못하고, 돈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티메프 사태와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행부터 타고 돈은 천천히 납부해도 좋다는 게 후불제 여행사이다. 지난 2017년 지인과 골프여행을 다녀온 한 소비자는 당시의 탄축감에 2년 뒤에도 후불제 여행 회원이 되어 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막 터지는 바람에 여행 일자를 잡지 못하고 몇 년간 매월 12만 원씩 돈만 내다 최근에는 여행 일자를 잡고자 했지만, 결국 거절됐다. 피해자는 "계속 신청을 했는데 단원이 됐다고 계속 뜨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좋은 상용 나온다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6개 지점을 돌 만큼 탄탄한 사업망을 구축한 후불제 여행사였다. 후불제 여행사 대표는 "저희는 일정 부분 조금만 납입하고 갔다 와서 약속대로 됐을 때 조금씩 갚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돈 없이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주변의 말에 일단 소액이지만 회원비를 내기 시작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여행은 언제 갈지 모르게 됐고, 환급금 지급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이 속출했다.

현재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저마다 물려있는 금액도 제각각이다. 목돈 없이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후불제 여행사, 결국은 사기가 아니냐며 경찰에 집단 고발장이 제출됐다.

트럼프 효과 비트코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07% 내린 5만 9천286달러, 우리 돈 8천71만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5만 7천100달러대까지 급락하며 5만 7천 달러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선을 터치했던 지난 7월 29일 이후 6일간 약 15% 떨어지면서 '트럼프 효과' 이전으로 돌아갔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선 아래에서 거래되다가 지난 7월 13일부터 급등한 바 있다.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한 이후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해 7만 달러선까지 올랐었

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미국에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시작됐지만, 가상화폐 침체 속에 비트코인보다 낙폭이 더 커진 모습이다.

가상화폐의 약세는 미국의 7월 실업률이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와 10년 전 파산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상환 등에 따른 공급량 증가 등도 하락 이유로 꼽힌다.

일부 투자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주 등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 위축으로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란 "하니야 암살에 대한 보복은 이란의 권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새 이란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테헤란의 이란 의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연설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지난달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의 암살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보복하는 것은 이란의 권리이며, 이런 보복이 미래의 침략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하루 전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국 지도자의 지체없는 가지지구 휴전 촉구를 거부했다.

"하시나 전 총리를 재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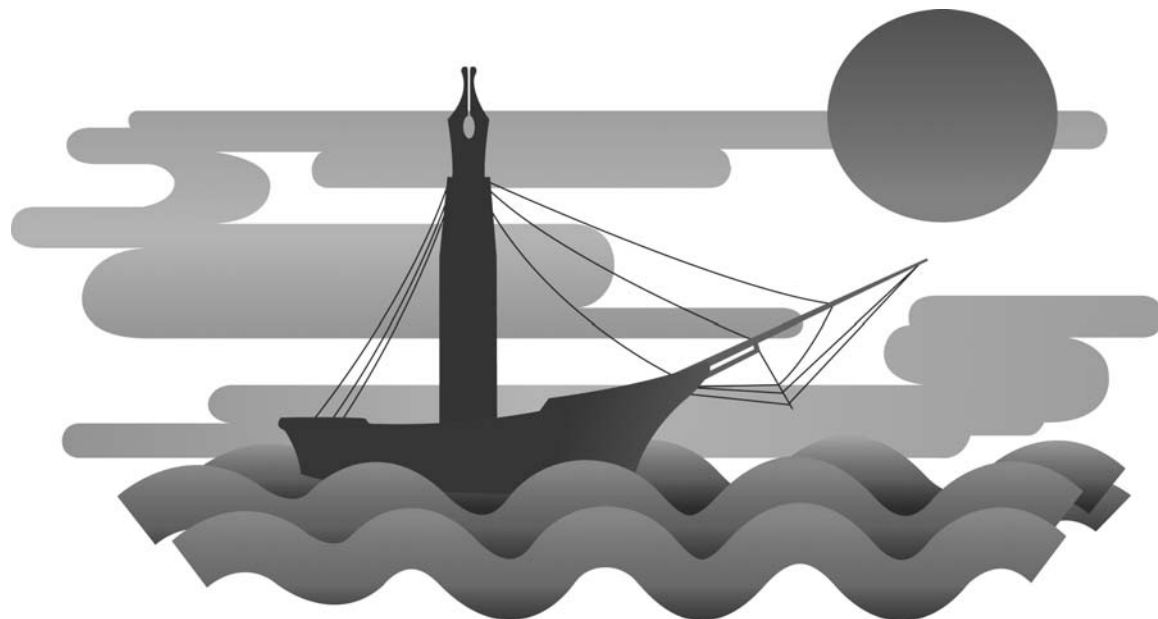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지난 13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대학생들이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의 재판을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현지 당국은 하시나 전 총리 및 고위 관리 7명이 지난 7월 학생 시위 도중 식료품점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